『中國學』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12
pp.199-216 ISSN : 1229-9618

『西遊記』의 沙悟淨 연구*

서정희**

【목 차】

1. 서론
2. 『서유기』 이전 문헌 속 사오정
3. 『서유기』 속 사오정의 거주지, 이름, 형상, 생애
4. 『서유기』에 나타난 사오정의 특징, 역할, 의미
   1) 스토리에 나타난 사오정의 특징, 역할, 의미
   2) 오행의 상생상극관계를 통해 본 사오정의 특징, 역할, 의미
5. 결론

【초록】

본고는 『서유기』 이전 출간되어 나온 관련 문헌을 통하여 사오정 형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서유기』 속에 묘사된 그의 형상과 특징을 분석하여 그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한 논문이다. 이전 문헌을 통하여 사오정 형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뒤, 이어 사오정의 이름과 거주지 유사하, 형상, 생애 등을 고찰하여 그의 내력과 특징을 개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유기』 스토리에 나타난 사오정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오행의 上生相剋說에 나타난 그의 특징과 역할을 분석하여 『서유기』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사오정은 공성(空性)에 대해 깊은 각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승려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사형제 간의 형제애를 중시하며 구성원 사이의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키워드】 사오정, 화상, 유사하, 오행, 조화, 응집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2015년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chsuh@pusan.ac.kr)

1. 서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五聖 가운데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인물이 사오정이다.[1] 그는 개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리하여 역대 비평가들은 주로 손오공과 저팔계, 삼장 등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사오정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매우 미미한 편이다.[2] 그러나 그는 필경 取經團의 일원으로 10만 8천리의 서행 길을 완주함으로써 金身羅漢의 神位에 오른 인물이다.[3] 영리하고 재치가 넘치며 하늘과 땅을 넘나들면서 서천 길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손오공과 食色과 물질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세속인의 본능을 대표하는 저팔계에 비해 그는 입체감이나 생동감이 결여된 인물이기는 하나 소설의 스토리 전개, 인물형상 및 주제 구성상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흔히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과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는 동적이고 화려한 인물과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인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열광한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조직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후방에서 소리 없이 일하는 인물들은 화려한 인물들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막후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는 영웅적 인물이 이룬 업적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전면에 화려하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인물로 설정된 사람이 사오정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功果에 조바심내지 않으면서 견인불발의 의지력을 지니고 묵묵히 목표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물이다. 손오공처럼 요괴들을 용감하게 퇴치하거나, 삼장의 정신적 경지를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등 스토리를 극적으로 전개하고 중심 주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직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영웅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손오공, 저팔계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형상화된 사오정에 관한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오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 『서유기』이전 관련 문헌에 보이는 사오정의 형상화 과정을 먼저 고찰하여 사오정이란 인물이 형성된 역사적 연원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서유기』 속 사오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

---

1) 五聖은 삼장,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용마 등 다섯 인물을 지칭한다. 용마를 제외한 인물 중에서 역할이 가장 작은 인물이 사오정이다. 사오정은 손오공이나 저팔계에 비해 활약이 뛰어나지 않으며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2) 사오정에 관한 인물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지금까지 나온 사오정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 趙天池, 「忠厚平實的沙悟淨」, 『西遊記探微』, 巨流圖書公司, 1983; 張靜二, 「沙僧」, 『西遊記人物研究』, 臺灣學生書局, 1984; 張錦池, 「論沙和尚形象的演化」, 『西遊記考論』,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3) 羅漢은 상좌부 불교(소승불교)의 이상적 果位로 나한에 이르면 貪·嗔·痴의 번뇌가 사라지고,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으며 생사윤회의 고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張錦池, 『西遊記考論』, pp.216-217 참조.

2. 『서유기』 이전 문헌 속 사오정

『서유기』 故事는 佛道를 구하러 천축국에 갔다 돌아온 당 현장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17 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당 현장은 『大唐西域記』를 구술하여 이국에서의 신기한 여행담을 펼쳐보였다. 이 여행기 안에는 그가 천신만고 끝에 건넜던 대 사막에 대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넓고 넓은 유사로 들어가게 된다. 모래는 느리게 흘러가며 바람에 따라 모이기도 흩어지기도 하며 사람의 족적이 남지 않아 길을 잃기가 쉽다. 사방은 망망하기만 하여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유골을 모아 표식으로 삼는다.(從此以東, 入大流沙. 沙則流漫, 聚散隨風, 人行無迹, 遂多迷路. 四遠茫茫, 莫知所指, 是以往來者聚遺骨以記之.)”[4]

사람의 자취가 없는 ‘流沙’는 길을 잃고 죽어 간 사람의 유골을 표지로 삼아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가득한 곳이다. 『대당서역기』에서는 流沙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유사는 현장의 제자인 慧立·彦悰이 저술한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에 오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된다.

> 여기에서 다시 길을 떠나면 막하연적에 이르는데 이곳의 길이는 팔백 여리로 예부터 사하라고 불렀다. 하늘에는 새가 날지 않으며 땅에는 짐승이 다니지 않는다. 또 나무도 풀도 없다. 이때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일 뿐 마음속으로 오로지 관음보살과 「반야심경」을 암송하며 갔다.(從此已去, 卽莫賀延磧, 長八百餘里, 古曰沙河, 上無飛鳥, 下無走獸, 復無樹草. 是時顧影唯一, 心但念觀音菩薩及「般若心經」.)[5]

‘沙河’는 팔백여리의 모래 강으로 새, 짐승, 나무, 풀 등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하고 황량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장은 자신의 그림자를 벗 삼아 관세음보살의 명호와 「반야심경」을 암송하며 대 사막을 건너갔다고 한다. 밤에는 요괴의 침습을 받고 낮에는 사막 모래바람을 맞으며 고군분투하며 길을 재촉하던 중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꿈속에 나타난 비할 데 없이 큰 신의 인도를 받아 겨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6]

『서유기』의 유사하는 『大唐西域記』와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의 ‘流沙’, ‘沙河’에 관한 기록에서 탄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두 문헌에 아직 사오정과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한 사막 지역과 연결된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

4) 玄奘, 辯機 著, 季羨林 等校注, 『大唐西域記校注』, 中華書局, 2004, 第12卷12條 「大流沙以東行程」, pp. 1030-1031.
5) 慧立·彦悰 著,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劉蔭柏編, 『西遊記研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90, p.104에서 재인용.
6)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pp.104-105.

유사하와 관련된 인물이 얼굴을 내민 것은 송대『大唐三藏取經詩話』에 와서이다. 여기에 深沙神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서유기』속 사오정의 前身이다.『대당삼장취경시화』에 심사신은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 심사신이 말하길 : "너를 두 번이나 잡아먹고 나서 그 뼈를 주머니에 담아 목에 걸어두고 있지." 화상이 말하길 : "너는 너무도 무지하구나. 이번에도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너의 일문을 다 몰살시키겠다." 심사신은 합장을 하여 은덕에 감사를 표하고 자비로움에 몸을 엎드렸다. 심사신은 당시 포효하며 화상으로 하여금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다. 붉은 먼지가 빽빽이 일어나고 흰 눈이 분분히 날렸다. 한참이 지나자 일시에 서너 갈래의 불길이 뜨겁게 타 오르고 모래가 자욱이 날리고 천둥소리가 우르릉거렸다. 멀리 금교가 보이는데 양쪽 가에는 은선이 있었는데 모두 심사신이 변화한 것으로 크기가 삼십 척이 되는 심사신이 두 손으로 다리를 받쳐 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사와 손오공 일행 일곱 명은 금교를 건넜다.(深沙云 : "項下是和尚兩度被我吃你, 袋得枯骨在此." 和尚曰 : "你最無知. 此回若不改過, 教你一門滅絶!" 深沙合掌謝恩, 伏蒙慈照. 深沙當時哮吼, 教和尚莫敬(驚.) 只見紅塵隱隱, 白雪紛紛, 良久, 一時三五道火烈, 深沙袞袞(滚滚), 雷聲喊喊, 遙望一道金橋, 兩邊銀線, 盡是深沙神, 身長三丈, 將兩手托定; 師行七人, 便從金橋上過過了.)[7]

몸을 金橋로 변화시켜 당승과 猴行者(손오공 전신) 등 취경단 7인을 건너게 해 준 장본인이 바로 심사신이다. 심사신은 불경을 가지러 가는 승려를 2번이나 잡아먹은 요괴인데 삼장의 계도를 받은 후, 자신의 몸을 금교로 변화시켜 삼장을 비롯한 손오공 일행을 건네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심사신이 법사를 배웅하며 읊은 시에 의하면 그는 일찍이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살았었는데 죄를 짓고 深沙에 떨어져 500년을 보냈다고 한다.[8] 그는 취경인들이 深沙를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주면서 언젠가 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몸을 받기를 기원하는 바램을 밝힌다. 이렇게 西遊故事에 얼굴을 내민 심사신은 이후『西遊記平話』殘本에 그 이름을 올린 이후[9], 원말 명초 楊景賢의『西遊記雜劇』「行者除妖」에 등장한다.

> 화상은 해골을 목에 걸고 나와 말하길 : "항하의 모래 위에는 배가 지나다니지 못하니 8만년 동안 삿대를 독차지 하였다네.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간을 먹으며 신명도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네. 소성은 水怪로 태어났으며 자라서는 河神이 되어 옥황상제의 성지도 받들지 않고 석가모니불의 교리도 따르지 않았다네. 노하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슬프면 비를 불러오고, 기쁘면 안개와 구름 속을 오르며 한가하면 모래와 물을 가지고 놀았다네. 사람의 백골은 높은 산처럼 쌓이고, 피는 강물처럼 흘렀으며, 사람의 목숨은 흐르는 모래와 같았고, 영혼은 아귀와 같았다네. 중 하나가 서천으로 경을 가지러 가길 발원했다고 들었는데, 어찌 네가 이 모래 강을 건널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아홉 차례 중이 되었으나 내게 아홉 차례나 잡아 먹혔으니 그의 해골 아홉 개가 아직도 내 목에 걸려 있다네.(和尚掛骷髏上云 : 恒河沙上不通船, 獨霸篙師八萬年. 血人爲飲肝人食, 不怕神明不怕天. 小聖生爲水怪, 長作河神, 不奉玉皇詔旨, 不依釋老禪規. 怒則風

---

7)『大唐三藏取經詩話』, 劉蔭柏,『西遊記研究資料』, p.161에서 재인용.

8)『大唐三藏取經詩話』, 沙僧前來解吟詩曰 : "一墮深沙五百春, 渾家眷屬受災殃. 金橋手托從師過, 乞薦幽神化却身." 劉蔭柏,『西遊記研究資料』, p.161에서 재인용.

9) 조선 숙종 시 중국어교과서『朴通事諺解』에 인용된『西遊記平話』의 '與沙和尚及黑豬精朱八戒偕往'에 사화상이 보인다.

生, 愁則雨到, 喜則駕霧騰雲, 閑則搬沙弄水. 人骨若高山, 人血如河水, 人命若流沙, 人魂若餓鬼. 有一個僧人, 發願要去西天取經, 你怎麽能够過得我這沙河去? 那廝九世爲僧, 被我吃他九遭, 九個骷髏尙在我脖項上.)[10]

『서유기잡극』에 등장하는 항하의 요괴는 강을 건너려던 승려를 아홉 차례나 잡아먹고, 그 해골을 목에 걸고 나타나 또 다시 취경인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는 자신이 옥황상제를 호위하는 권렴대장이었음을 밝히는데 드디어 취경인을 잡아먹는 요괴가 일찍이 옥황상제를 모시던 천신이었음이 드러난다. 모래 강, 아홉 차례 취경인을 잡아먹음, 취경인의 해골을 목에 걸고 사람을 잡아먹음, 전생에 옥황상제의 권렴대장이었다는 소재들은 『서유기』의 사오정 형상화 과정에 그대로 채용된다. 『서유기잡극』의 요괴 화상은 『대당삼장취경시화』의 심사신보다 더 상세하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서유기』 속 사오정 탄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장구한 세월을 거쳐 수많은 민간 예인의 손을 거쳐 100회본 『서유기』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사오정 형상 역시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예인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서유기』 속 사오정의 거주지, 이름, 형상, 생애

사오정이 『서유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제8회 관세음보살이 석가모니불의 명을 받고 동토로 취경인을 찾으러 나서는 길에서이다. 동토로 향하던 관세음보살은 유사하의 水怪를 취경단의 일원으로 거두고 그에게 사오정이란 법명을 지어준다. 사오정의 거주지, 이름, 형상과 생애를 정리하여 이것들이 사오정 형상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겠다.

1) 거주지 - 流沙河

유사하란 모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막의 특수한 지형을 뜻한다. 유사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팔백리 유사하, 삼천 약수는 깊기도 하구나. 거위 털도 떠오르지 못하고, 갈대꽃도 바닥에 가라앉는 곳.(八百流沙界, 三千弱水深. 鵞毛飄不起, 蘆花定底沉.)[11]

이 강물에는 거위 털조차 뜰 수 없습니다. 단 이전에 경을 가지러 왔던 취경인의 해골만이 강물위에 떠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這個水, 鵞毛也不能浮. 惟有九個取經人的骷髏, 浮在水面, 再不能沉.)[12]

---

10) 明 楊景賢, 『西遊記雜劇』, 第3本 11齣.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p.206에서 재인용.
11) 吳承恩, 『西遊記』, 華正書局, 1978, 제22회, p.245.
12) 『서유기』, 제8회, pp.83-84.

천상세계에서 쫓겨난 사오정이 거주하던 유사하는 팔 백리에 이르는 거대한 강이다. 가벼운 깃털, 갈대꽃조차 뜰 수 없는 약수로 아무도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13] 다만 수행을 통해 법신을 이룬 손오공이나 저팔계 같은 인물만이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凡態를 벗지 못한 삼장 같은 이는 건널 수 없는 곳이다. 즉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무서운 힘이 지배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그리하여 사오정이 목에 걸고 있던 아홉 개의 해골로 九宮法船을 만들고 나서야 삼장은 비로소 유사하를 건널 수 있게 된다.

2) 이름 - 沙悟淨, 沙和尙, 沙僧

사오정의 姓 沙는 流沙河라는 지명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의 법명 悟淨은 청정함을 깨우치라는 의미로 청정함을 깨우친 자리가 바로 깨끗한 정토, 즉 佛國土라는 의미이다.[14] 그는 또 사화상, 사승으로도 불린다. 이는 삼장이 그를 제자로 거두면서 그의 절하는 모습이 和尙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음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다.[15] 화상이란 보통 불교에서 출가한 승려 중 戒를 내려 주는 스승을 지칭한다.

和尙 이 두 글자에는 '以和爲尙'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16] '和'字에는 조절과 조화 그리고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尙'자에는 중시하다, 숭상하다의 의미가 있다. 즉 화상이란 명칭에는 조화, 화합, 화목을 중시하고 귀히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사오정에게 조화, 화합, 단결, 화목을 추구하는 덕목이 부여되어 있기에 화상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취경단원 모두가 불가에 귀의한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삼장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사오정만이 화상으로 불리는 것도 사오정에게 부여된 이와 같은 역할 때문일 것이다.

3) 형상

蟠桃宴에서 옥 술잔을 깨뜨린 죄를 지은 사오정은 흉측하고 추악한 괴물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여 유사하로 내려온다. 『서유기』에 묘사된 그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 푸른 듯 푸르지 않고 검은 듯 검지 않은 어두침침한 낯빛; 큰 듯 크지도 않고 작은 듯 작지도 않으며, 맨발에 근육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몸. 눈빛은 번쩍번쩍, 부뚜막 안의 한 쌍 등불 같네. 입가는 야차처럼 쭉 찢어져 백정 집의 화로 같네. 삐쭉 튀어나온 송곳니는 칼날을 걸어놓은 듯하고, 시뻘건 머리는 어지럽게 풀어헤쳤네. 한번 내지르는 소리 뇌성벽력 같고, 두 다리로 파도를 가르는 모습 몰아치는 바람 같네.(靑不靑, 黑不黑, 晦氣色臉; 長不長, 短不短, 赤脚筋軀. 眼

---

13) 약수는 부력이 없는 물을 말한다. 『山海經』「大荒西經」에 弱水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그 注에 "崑崙有弱水, 鵝毛不能起."라는 기록이 보인다.

14) 李安綱, 『苦海與極樂』, 東方出版社, 1995, p.174; 劉蔭柏, 『西遊記硏究資料』 p.572에 인용된, 淸 張書紳, 「新說西遊記總批」 참조.

15) 『서유기』, 제22회, p.254.

16) 張靜二, 『西遊記人物硏究』, p.182.

光閃爍, 好似竈底雙燈; 口角夜叉, 就如屠家火鉢. 獠牙撑劍刃, 紅髮亂蓬鬆. 一聲叱咤如雷吼, 兩脚奔波似滾風.)[17]

푸르고 어두침침한 얼굴색에 두 눈은 등잔불처럼 번뜩이며 입은 야차처럼 찢어진데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시뻘건 머리칼을 한 사오정의 모습은 비할 데 없이 흉악하고 추악하다. 손오공이 귀여운 원숭이 형상을 하고 저팔계가 돼지 형상을 한 모습인데 반해 사오정은 흉측하고 무서운 야차 혹은 괴물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키는 두 길이나 되며 팔뚝 두께는 삼정이요, 얼굴빛은 쪽빛이요, 입은 피를 담은 동이 같고, 눈빛은 번쩍번쩍하고 이빨은 못을 가지런히 박아놓은 듯(身長二丈, 膊濶三停, 臉如藍靛, 口似血盆, 眼光閃灼, 牙齒排釘)'[18]하다는 묘사에서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그의 생김새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외모와는 달리 그는 침착하고 의연하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며 충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 비록 모습은 누구보다 추악하지만 사부를 받들어 모시고 사형제 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취경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생애

시를 통해 사오정의 생애와 그 행적을 살펴보겠다.

어려서부터 신통한 기운 왕성하여 천지 만리를 실컷 놀러 다녔지. 영웅으로 천하에 이름을 날리고 호걸로서 만인의 본보기가 되었다네. 만국구주를 멋대로 돌아다니고 오호사해를 맘대로 누비고 다녔어. 그게 다 도를 배우러 세상 끝까지 헤매고 스승을 찾으러 땅 구석구석을 다닌 거라네. 그 덕분에 비로소 진인을 만나 위대한 도 활짝 열어주니 금빛 찬란하더라.……먼저 납과 수은을 거두고 다시 수은과 납을 내놓네. 명당에 있는 신장의 물은 혀 밑으로 들어가고 중루에 있는 간의 불은 심장으로 향하네. 삼천 공덕이 찼기에 옥황상제 배알하고 정성으로 예를 올리며 출셋길 밝혔지. 옥황상제 벼슬을 내리시며 친히 권렴장에 봉하셨지. 옥황상제 행차를 호위함에 선봉을 서고 조회에 드나들 때도 앞 열에 섰네. 그런데 어느 날 서왕모께서 반도를 따 요지에서 연회 열어 여러 장수들을 초청했네. 그 자리에서 실수로 옥 술잔을 깨뜨리니 천신들 모두 혼비백산했네. 옥황상제 대노하시고 조정을 주관하는 좌보상에게 명하셨네. 갑옷을 벗기고 관직을 박탈당한 채 사형장으로 떠밀려갔지. 그 때 고맙게도 적각대천선 대열에서 나와 간언하여 날 구해 주었네.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 더 재판은 않고 유사하 동쪽 언덕으로 유배를 당했네. 배부르면 이 강 속에 웅크려 자고 배고프면 물결 헤치고 나와 먹잇감을 찾네.(自小生來神氣壯, 乾坤萬里曾遊蕩. 英雄天下顯威名, 豪傑人家做模樣. 萬國九州任我行, 五湖四海從吾撞. 皆因學道蕩天涯, 只爲尋師遊地曠. 因此纔得遇眞人, 引開大道金光亮.……先將嬰兒姹女收, 後把木母金公放. 明堂腎水入華地, 重樓肝火投心臟. 三千功滿拜天顔, 志心朝禮明華向. 玉皇大帝便加陞, 親口封爲捲簾將. 往來護駕我當先, 出入隨朝予在上. 只因王母降蟠桃, 設宴瑤池邀衆將. 失手打破玉玻璃, 天神皆開魂飛喪. 玉皇卽便怒生嗔, 却合掌朝左輔相. 卸冠脫甲摘官銜, 將身推在殺場上. 多虧赤脚大天仙, 越班啓奏將吾放. 饒死回生不點刑, 遭貶流沙東岸上. 飽時困臥此河中, 餓去飜波尋食餉.)[19]

---

17) 『서유기』, 제8회, p.82.
18) 『서유기』, 제29회, p.332.

위의 시는 사오정이 취경단에 합류하기 전까지의 생애를 읊고 있다. 시를 통해 그의 생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사오정은 보통 사람보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호걸이다.

②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도를 구하던 그는 마침내 眞人을 만나 득도한 뒤, 인간의 몸을 벗고 천상세계로 올라가 옥황상제를 호위하는 권렴대장이 된다.

③ 서왕모가 연 반도대회에서 실수로 옥 술잔을 깨뜨리는 죄를 짓게 된다.

④ 벌을 받아 유사하로 내려 온 그는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그의 생애는 서왕모가 연 반도대회를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상반부는 신선이 되는 과정을 하반부는 유사하로 추방되는 과정을 읊고 있다. 즉 ①과 ②는 사오정이 도를 구하러 다닌 과정과 이후 도를 이룬 뒤 천상세계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도를 구하러 다니던 그는 마침내 진인을 만나 도교의 수련을 완성하고 천상세계로 올라가 옥황상제를 모시는 권렴대장이 된다. ③과 ④에서는 반도연에서 옥 술잔을 깨뜨린 죄를 짓고 천상세계에서 쫓겨나게 된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유사하로 추방된 그는 이레에 한 번씩 검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가혹한 형벌을 받으며 배가 고플 때마다 파도를 헤치고 나와 사람을 잡아먹는 삶을 영위한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佛道에 입문하여 10만 8천리의 속죄과정을 거치면서 영원한 자유를 상징하는 靈山에 이르게 된다. 그는 영웅호걸에서 옥황상제를 호위하는 天神이 되었다가 다시 요괴로 추락한 뒤 속죄의식을 거쳐 비로소 고해에서 벗어나 金身羅漢의 果位에 오르게 된다. 위에 서술한 사오정의 생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오정은 자신의 생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영웅호걸)-천신(권렴대장)-요괴(유사하 요괴)-불교의 신(금신나한)으로 변신하는 사오정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인간이란 존재는 차원을 뛰어넘어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은 불변의 존재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즉 모든 존재는 해탈하기 전까지 생명의 순환 구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오정은 人性과 獸性, 神性을 한 몸에 구비하고 있는 복합적 존재이다. 그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호걸이며 이에 걸맞은 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가 지닌 충직함, 사려 깊음, 침착함, 추진력, 신중함 등등은 모두 뛰어난 그의 인성을 보여준다. 그의 신성은 천상세계의 권렴대장이 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름하여 보물 몽둥이, 요괴를 능히 항복시키고(名稱寶杖善降妖)', '길어졌다 짧아졌다 내 마음대로(或長或短任吾心)'[20]의 공능을 지닌 항요장을 들고 도교의 최고신인 옥황상제를 모시는 그는 신성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반면 흉측한 야차의 모습을 한 채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야수적 특징은 그의 수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그의 존재 안에는 인성, 수성, 신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욕망의 유무나 크기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 교체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단 불교에 입문한 뒤, 사오정은 구도의 열망

19) 『서유기』, 제22회, pp.247-248.
20) 『서유기』, 제22회, pp.250-251.

이외에 다른 욕망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서행 길에 오른 그에게서 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사오정은 신통력을 지닌다. 그의 신통력은 손오공과 저팔계에게는 못 미치지만 천하의 보물 '降妖寶杖'을 휘둘러 요괴를 정복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손오공이나 저팔계처럼 변신에 능하지 못하다.

사오정의 생애를 통하여 인간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인간, 신, 요괴로 변환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신성을 향하여 헌신하고 노력함으로써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서유기』에 나타난 사오정의 특징, 역할, 의미

본문에서는 스토리를 통하여 沙悟淨의 특징, 역할 및 그 의미를 고찰하고, 이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 의거하여 사오정의 특징, 역할 및 그 의미를 고찰하겠다.

1) 스토리에 나타난 사오정의 특징, 역할, 의미

삼장 제자 중 화상으로 불리는 인물은 사오정뿐이다. 그는 일행 가운데 승려로서의 덕목을 가장 잘 갖춘 인물이다. 영리하지만 극단적인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손오공이나 본능에 충실한 욕심 많은 세속인인 저팔계에 비해 그는 승려의 본분을 가장 충실히 지키는 인물이다. 그는 비록 서행 길에서 탁월한 영적 경지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취경을 위해 헌신하는 불제자로서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서천 길에서 그가 표출하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심리 반응에 따라 불제자로서의 그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오정은 (1)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고행승 (2)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보필하는 수행승 (3)師兄弟 간의 화목을 추구하는 불제자 등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사오정의 면면을 분석하여 그가 맡은 역할과 그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고행승

불제자들은 공성을 깨달아 원만공덕을 이루는 것을 수행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사오정에게서는 공성에 대한 깨달음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오히려 일관되게 계율을 지키며 서천을 향하여 매진하는 고행승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불교의 계율 중 가장 중요한 계율이 오계이다. 오계는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셋째, 思婬하지 말라. 넷째,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등이다.[21] 아래에 불제자의 기본 행동지침인 오계를 중심으로 사오정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여 그의 특징 및 역할을 살펴보겠다.

---

21) 곽철환, 『시공불교사전』, 시공사, 2003, p.501 참조.

첫째, 삼장의 제자 가운데 살생하지 말라는 '不殺生戒'를 가장 잘 지키는 인물은 사오정이다. 손오공이나 저팔계는 종종 불상생계를 아무 거리낌 없이 깨뜨린다. 이에 반해 사오정은 불문에 귀의한 이후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제57회에 가짜 손오공이 가짜 취경단을 꾸렸을 때, 자신을 사칭하는 가짜 사오정을 단숨에 때려죽이는 경우 이외에 사오정이 주도적으로 살생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삼장처럼 맹목적으로 不殺生戒에 집착하여 또 다른 재난을 야기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사오정은 뚜렷하게 삼장과 구별된다.

둘째,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계율을 사오정은 잘 지킨다. 그는 서천 길 내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은 적이 없다. 삼장과 마찬가지로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손오공은 재물을 탐하지 않지만, 천상의 蟠桃나 太上老君의 丹藥 혹은 鎭元大仙의 인삼과 등 불노장생의 힘을 가진 보물에 대해서는 무한한 욕심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손오공의 행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애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인물은 저팔계이다. 그는 늘 재물, 여색, 편안함을 갈구하는, 영원히 결핍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사오정은 재물에 대해, 부귀영화에 대해 그리고 심지어는 불노장생할 수 있다는 선계의 보물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셋째, 음란하지 말라는 계율을 사오정은 잘 지킨다. 부귀영화, 권력, 성적 욕구는 사람들이 갈구하는 욕망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성적 욕구는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원초적인 욕구로 이 욕구의 충동을 무시하거나 제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사오정은 성적 유혹 앞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인다. 손오공이 성적 유혹을 초월한 존재라면 사오정은 이에 굴하지 않는 의연함을 지닌 인물이다. 성적 유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요하는 삼장과도 다른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제23회의 「四聖試禪心」에서 사오정은 삼장으로부터 아리따운 과부와 딸들이 사는 장원에 남아 사위가 되라는 권유를 받는다. 권유를 받은 사오정의 "사부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관음보살님에게 감화를 받아 계를 받고 사부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부님이 거두어 주신 후 가르침을 받고 사부를 모신지 채 두 달도 못되었고, 공과를 조금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부귀를 구하겠습니까? 죽어도 서천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을 속이는 이런 짓은 절대 못합니다.(你看師父說的話. 弟子蒙菩薩勸化, 受了戒行, 等候師父; 自蒙師父收了我, 又承教誨; 跟着師父還不上兩月, 更不曾進得半分功果, 怎敢圖此富貴! 寧死也要往西天去, 決不幹此欺心之事.)[22]라는 말에서 계율을 지키고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겠다는 그의 의지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목숨을 내놓고 서천으로 가겠다는 그의 말로부터 사오정의 구도에 대한 열망과 헌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부귀영화와 여색을 탐하는 것을 '欺心之事' 즉 마음을 속이는 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그의 결연한 의지와 태도는 서천 길 내내 변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취경단 내부의 결속력을 응집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유혹 앞에서 내심의 갈등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재촉하는 사오정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복잡한 내심세계를 갖지 못한 단순하고 평면적 인물이라는 평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목적을 향한 그의 불요불굴의 의지와 실행력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서천으로의 길을 완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22) 『서유기』, 제23회, p.261.

네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와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두 계율을 사오정은 큰 어려움 없이 지킨다. 이 두 계율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계를 중심으로 사오정의 행위와 심리 상태를 살펴 본 결과, 사오정은 오계를 성실히 지키는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재물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며 욕정의 충동에도 굴복하지 않는 승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공성에 대한 사오정의 깨달음의 깊이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교의 계율을 충실하게 지키며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는 취경의 적임자임이 틀림없다. 즉 그는 영성이 탁월한 수행자는 결코 아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 길을 완주하는 의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보필하는 수행승

삼장에게 계를 받은 이후 사오정은 서행 길 내내 스승의 가르침을 묵묵히 따르는 충직한 제자이다. 그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잘 떠받드는 제자이다. 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스승을 보필하며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핀다. 그리고 요괴들이 삼장을 향하여 달려들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스승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삼장이 타고 다니는 백마를 돌보고, 무거운 짐 보따리를 군소리 없이 운반하는 것도 그의 책임이다. 요괴와의 전투에 참여하는 횟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삼장을 구하는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요괴를 물리치는 일에 동참한다. 서행 길에서 그가 맡은 일들은 공적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들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그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는 손오공이나 저팔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오정만이 지닌 미덕이다. 걸핏 하면 花果山으로 돌아가 요괴 왕 노릇을 하겠다는 손오공이나 자기 몫을 챙겨 高老莊으로 돌아가 색시와 살겠다는 저팔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직하고 충직한 모습이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취경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취경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는 삼장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진심을 다하여 시봉하며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취경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師兄弟 간의 화목을 추구하는 불제자

사오정은 취경단에서 궂은일을 도맡아할 뿐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여 서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張靜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서유기의 묘사로부터 나는 사오정이 확실히 늘 조화와 응집의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오정의 조화는 통상 분쟁을 중지시키고 순종하는 두 가지 방면으로 표현된다.…… 상극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삼장 일행 네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임무를 완성하게 할 목적에서 사화상은 늘 화목을 숭상하는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종한다. ……응집 면에서 사화상은 더욱 비할 데 없는 공능을 발휘한다.(從西遊記書中的描述, 我發現沙

僧確實經常擔起調和與凝聚的任務. 沙僧的調和通常是表現在止爭與順從兩方面.……爲調和生剋, 使師徒四衆能夠同心同德, 以完成任務起見, 沙僧經常抱着 '以和爲尙'的原則去順從別人的意見.……在凝聚方面, 沙僧更發揮了無比的功能.)[23]

張靜二는 조화와 응집 두 방면에서 사오정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사오정은 비록 재난 해결에 동참하기는 하나 그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고 봉합하여 일행의 화합과 화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취경단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 재난해결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이어 좀 더 강력한 재난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오정은 내부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힘을 응집시켜 서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예를 들면 그는 삼장이나 큰 사형인 손오공의 뜻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저팔계가 무리한 요구나 떼를 써도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팔계의 요구를 차단하거나 좋은 말로 구슬려 구성원 사이의 화목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겨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그는 취경이라는 공동 목표를 상기시키고, 취경의 공덕을 열거하면서 다시금 대오를 정비하여 서천으로 향하도록 설득한다. 제40회에 삼장을 사로잡으려는 紅孩兒를 火眼金睛의 法眼으로 단번에 알아본 손오공은 두 차례나 삼장을 말 아래로 밀어뜨려 요괴의 마수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사물의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삼장은 자신을 두 차례나 밀친 손오공에게 화가 치밀어 욕을 퍼붓는다. 분을 삭이지 못한 삼장은 손오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긴고주를 외워 그를 벌하려고 한다. 이 때, 사오정은 두 사람 사이에 들어서서 삼장의 화를 풀어준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시 요괴가 나타나 삼장을 사로잡아간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삼장에게 실망한 손오공은 아우들에게 취경단을 해체하고 각기 살길을 찾아 떠나자고 소리친다. 이 때 사오정은 취경단의 해체는 관세음보살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덕행을 해치는 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로 손오공을 달래어 스승을 구하러 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사오정은 손오공과 삼장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촉발되었을 때, 중간에서 삼장의 화를 진정시키고 손오공을 달래어 내부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외부에서 온 재난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손오공과 삼장의 갈등이 사오정에 의해 해소되듯이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의 갈등도 사오정에 의해 해결된다. 이처럼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단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오정이 있기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취경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오정은 조직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여 추진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는 비록 손오공이나 저팔계만큼 주목받는 캐릭터로 창조되지는 않았지만 서행길에서의 그의 역할과 위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구성원 사이의 중심력을 공고히 하는 사오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스토리와 주제 그리고 풍격을 지닌 『서유기』로 완성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오행의 상생상극관계를 통해 본 사오정의 특징, 역할, 의미

23) 張靜二 ,『西遊記人物研究』, pp.183-185.

오행이란 우주의 에너지인 기를 말한다. 오행은 우주 중에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변화활동을 말한다. 오행의 상관관계를 보면 목이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는데 이를 상생 관계라고 한다. 반대로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는 것을 상극관계라고 한다. 『서유기』는 詩文, 매회의 목차 및 對句에서 오행을 가져와 구성원을 상징하고, 상생상극 관계를 통해서 구성원 사이의 화합, 갈등을 나타내고 이들의 화합 여부가 취경 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24] 즉 예를 들면 '오행이 멈칫거리니 선림이 깨지고(五行蹬蹭破禪林)'[25], '중도에 헤어져 오행은 흩어지고(中道分離亂五行)'[26]에서 '오행'은 삼장일행을 지칭하며 '멈칫거리다', '흩어지다'는 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표시한다. 47회 목차 '성승은 밤에 '通天水에서 길이 막히고 금목은 자비를 베풀어 어린이를 구하다(聖僧夜遭通天水, 金木垂慈救小童)'에서 금과 목을 사용하여 손오공과 저팔계가 통천하에서 어린이를 구해 준 일을 나타낸다.

제22회에 사오정이 취경단에 합류하기 전 등장하는 詩 '금은 성에 귀의하여 같은 부류로 돌아가고, 목은 정을 구하여 함께 침윤에서 빠져나온다. 二土가 쌓은 모든 공적은 적막을 이루고, 수화가 조화를 이루니 티끌 한 점 없구나.(金來歸性還同類, 木去求情共復淪. 二土全功成寂寞, 調和水火沒纖塵,)'에서 금, 목, 이토 등 오행으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지칭하며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 도달하게 될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27]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제57회의 詩 '토목이 아직 공을 이루지 못했는데 금수는 끊어져 나가고 수행이 게을러졌으니 언제 법신을 이룰 것인가!(土木無功金水絶, 法身疎懶幾時成!)'에서는 오행이 순행하지 못함을 통하여 수행의 완성이 아직도 멀었음을 표시하고 있다.[28] 이처럼 金, 木, 二土, 金水, 土木 등의 오행을 사용하여 오성을 표시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활동 내용을 보여주며 상생 상극을 통하여 수행의 완성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즉 『서유기』는 오행을 가져와 인물을 표시할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화한다. 이들 오행과 오성간의 배열을 목차와 본문 내용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金은 손오공을 가리키고 木은 저팔계를 가리킨다.[29] 또 손오공은 心猿, 心主, 心 등으로도 불리는데 心은 오행 중 火에 속하기 때문에 화는 자연히 손오공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화와 금이 손오공을 대표하고 목이 저팔계를 상징한다는 견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水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수를 대표하는 인물이 삼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대륙의 李安綱, 대만의 張靜二와 吳壁雍 등인데 필자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한다.[30]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土는 자연히 사오정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오정은 토 이외에 土母, 刀圭, 黃婆 등으로도 불린다.[31] 아래에 좀 더 확실한 증거

---

24) 『서유기』인물과 오행에 관한 연구는 서정희, 「西遊記의 주제연구 — 五行의 相生相剋說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5집, 중국학연구회, 1998.12. 참조.
25) 『서유기』, 제41회, p.469.
26) 『서유기』, 제58회, p.674.
27) 『서유기』, 제22회, p.253.
28) 『서유기』, 제57회, p.658.
29) 임홍빈, 『서유기』, 문학과 지성사, 2003년. 임홍빈은 주)27에 보이는 詩에서 금을 손오공으로, 목을 저팔계로 번역하고 있다.
30) 李安綱, 『苦海與極樂』, 東方出版社, 1995, p.158; 張靜二, 『西遊記人物研究』, p.183 참조.

를 들어 사오정이 토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다. 제88회 목차 '삼장은 옥화현에서 법회를 열고 심원·목·토는 제자를 가르치다(禪到玉華施法會, 心猿木土授門人)'는 손오공·저팔계·사오정이 玉華縣에서 옥화왕의 세 아들을 각각 제자로 삼아 무예를 가르치는 내용을 표시하며 제89회 목차 '사자 요괴는 헛되이 무기연회를 베풀고, 금·목·토는 계책을 써 표두산을 소란하게 하다(黃獅精虛設釘鈀宴, 金木土計鬧豹頭山)'는 이 세 사람의 무기가 광채를 내며 빛나는 것을 본 黃獅精이 이를 훔쳐가는 내용을 표시한다. 여기서 심원·목·토는 각기 손오공·저팔계·사오정 세 사람을 가리키며 금·목·토 역시 마찬가지로 손오공·저팔계·사오정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토에 속하는 사오정이 나머지 오행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서 사오정의 역할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淸의 劉一明은 『西遊原旨讀法』에서 사오정이 토임을 밝히고 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사오정은 眞土이고 中宮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음양을 조화시키기에 변하지 않는다.(至於沙僧者, 爲眞土, 鎭爲中宮, 調和陰陽, 所以不變.)[32]

유일명에 의하면 사오정은 진토이고 중궁, 즉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특성을 가지며 불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淸, 陳士斌의 주장을 가져와 토의 작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 오행의 오묘함을 모으는 것은 전적으로 술기 두 토에 달려 있다. 토는 오행의 중앙으로 사계를 주관하며……사시를 운행하며 만물을 생성한다.……그러므로 금수는 토를 얻어 응집을 이루고, 목화는 토를 얻어 조화를 이루게 된다.……토는 비록 오행의 하나이지만 실은 오행을 총괄하는 태극이다.……사오정은 진토이며……금목수화는 토를 떠날 수 없으며 토를 얻어야 중궁이 제자리에 놓이게 된다.(攢簇五行之妙, 全在戊己二土. 土爲五行之中央, 主於四季……運四時而生成萬物.……故金水得土而凝聚, 木火得土而調和.……土雖五行之一, 實五行之極.……沙僧, 眞土也.……金木水火……不能離土, 得此土而正位中宮.)[33]

진사빈은 토는 오행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계를 주관하고 사시를 운행하며 만물을 생성시키는 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금수는 토의 작용을 받아 응집하며 목화는 토의 작용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토는 비록 오행의 하나이지만 실은 오행을 총괄하는 우두머리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오정이 진토이며 금·화(손오공), 목(저팔계), 수(당삼장)는 토를 떠날 수 없고 이 토를 얻어야 비로소 중궁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토의 작용을 유일명은 조화, 진사빈은 응집과 조화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화와 응집의 공능을 가진 토의 작용을 통하여 사오정이 일행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오정과 손오공, 사오정과 저팔계, 사오정과 삼장

---

31) 두 개의 토로 이루어진 '二土'와 약을 뜨는 숟갈인 '刀圭'는 모두 사오정을 상징한다. '黃婆' 역시 사오정을 상징한다. 二土와 刀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中野美代子, 「孫悟空與金與火」, 『西遊記的秘密』, 中華書局, 2002, pp.95-98 참조.

32)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p.595.

33) 陳士斌, 『西遊記』, 張靜二, 『西遊記人物研究』, p.183에서 재인용.

사이의 관계를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토에 속하는 사오정과 화와 금에 속하는 손오공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화가 토를 낳고 토가 금을 낳는 상생관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오정은 삼장과 손오공 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마다 손오공을 적극 변호해 주며 손오공이 쫓겨났을 때 손오공을 불러오도록 삼장을 설득하여 취경단의 내부를 결속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다음 사오정과 저팔계 사이는 木剋土의 상극관계이나 그들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나 분열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목화는 토를 얻어 조화를 이룬다는 진사빈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토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오정은 욕심 많고 게으르고 잔꾀를 부리는 저팔계와도 조화를 이루어 취경단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끝으로 사오정과 삼장 사이는 土剋水의 상극관계이나 사오정은 스승을 배려하고 스승의 생활을 돌보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다. 즉 수금은 토를 얻어 응집을 이룬다는 진사빈의 주장처럼 사오정은 삼장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여 취경단의 구심력을 높인다.

이는 토의 총체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는 상극관계인 수화와 목금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조절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수와 화 그리고 목과 금의 충돌을 완화시켜 조직의 구심력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수에 속하는 삼장과 화에 속하는 손오공의 충돌을 완화시키고 금에 속하는 손오공과 목에 속하는 저팔계의 다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토는 오행의 어머니로서 : '수금목화는 토가 없으면 화합을 할 수 없으니 토의 공은 비할 바 없이 크다. 그러므로 사화상이라 칭하는 것이다.(水金木火, 無此不能和合, 其功莫尙, 故又名沙和尙.)'[34]라고 했듯이 토는 화수목금을 조화시켜 모으는 공능을 가지고 있기에 사오정이 취경단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토는 비록 오행의 하나이지만 중앙에 위치하면서 오행을 이끄는 중심의 역할을 한다. 즉 중궁에 자리 잡은 토는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작용을 가진다. 그러므로 토로 대표되는 사오정은 자연스럽게 내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응집시켜 다시 한 번 난관을 극복하고 서천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오행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오정이 취경단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 및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사오정의 형상화 과정은 오랜 시간 민간 예인들의 노력과 정성을 거쳐 완성되었다. 그는 일찍이 『대당삼장취경시화』에서 심사신이란 이름으로 등장했으며, 『서유기잡극』에 이르러 더욱 구체적인 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100회본 『서유기』의 사오정으로 탄생하였다. 사실 사오정은 손오공이나 저팔계에 비해 그 형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사오정의 면면을 통하여 그의 역할과 작용을

34) 陳士斌, 『西遊記』, 張靜二 , 『西遊記人物硏究』, p.183에서 재인용.

살펴본 결과, 그는 『서유기』에서 그만의 뚜렷한 개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걸 맞는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유기』에서 사오정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특별한 각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승려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師兄弟 간의 형제애를 중시하며 구성원 사이의 조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조화와 화합을 통하여 그는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만약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가 없었더라면 삼장 일행은 취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오정이 맡은 주요 역할은 삼장, 손오공, 저팔계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서행 길을 완주하게 함으로써 원만공덕을 이루는데 있다. 이와 같이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면서 묵묵히 서천을 향하는 그의 역할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서유기』는 詩文, 매회의 목차, 대구에 오행을 활용하여 취경단 내부 구성원 사이의 조화 여부와 수행의 원만 여부 등을 나타낸다. 오행과 인물 배열을 고찰한 결과 사오정은 토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토는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고 조절하고 응집시키는 공능을 지닌다. 그리하여 토를 대표하는 사오정은 수에 속하는 삼장과 화에 속하는 손오공의 충돌을 완화시켜 조직의 구심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목인 저팔계와 금인 손오공의 갈등을 해소시켜 취경단의 추진력을 강화시킨다. 즉 사오정은 내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응집시켜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서천으로 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그는 취경단 내부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최상의 중재자이다. 오행을 통해 살펴본 사오정의 역할은 스토리 속에 나타난 그의 역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지금까지 사오정은 『서유기』 인물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채 논의에서 소외되거나 생략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사오정이 표출하는 취경에 대한 신념, 배려와 양보의 미덕, 조화와 화합에 의한 응집력은 모두 『서유기』의 스토리 전개, 주제 구성, 풍격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코 그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오정에 관한 인물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서유기』의 탄생이 한 두 사람의 활약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충실하게 자기의 캐릭터를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吳承恩,『西遊記』, 臺北: 華正書局, 1978.
吳承恩,『西遊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0.
胡光舟,『吳承恩與西遊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劉蔭柏,『西遊記研究資料』,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劉勇强,『西遊記論要』, 臺北: 文津出版社, 1990.
李安綱,『苦海與極樂』, 北京: 東方出版社, 1995.
老 庵 選編,『西遊故事』,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1999.
中野美代子,『西遊記的秘密』, 北京: 中華書局, 2002.
張錦池,『西遊記考論』,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03.
夏志淸,『中國古典小說史論』,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2003.
玄 奘·辯 機 原著, 季羨林 等校注,『大唐西域記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唐三藏取經詩話』, 臺北: 廣文書局, 民國67(1978).
鄭明娳,『西遊記探源』上・下, 臺北: 文開出版社, 民國71(1982).
趙天池,『西遊記探微』, 臺北: 巨流圖書公司, 民國72(1983).
張靜二,『西遊記人物研究』, 臺北: 學生書局, 民國73(1984).
余國藩 著, 李奭學 譯,『余國藩西遊記論集』, 臺北: 聯經出版社, 民國78(1989).
孫廣德,『先秦兩漢陰陽五行說的政治思想』, 臺北: 臺灣常務印書館, 民國82(1993).
劉蔭柏,『西遊記發微』, 臺北: 文津出版社, 民國84(1995).
吳壁翁,『西遊記研究』, 臺北: 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 民國69(1980).
임홍빈,『서유기』, 문학과 지성사, 2003.
서정희,「西遊記의 주제연구 — 五行의 相生相剋說을 중심으로」,『중국학연구』, 제15집, 중국학연구회, 1998.1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沙悟淨, 和尚, 流沙河, 五行, 調和, 凝聚
	영문	ShaWujing, Monk, Liushahe, Five Elements, Harmony, Condensation

A Study of Shawujing in *Xiyouji*

Suh, Jung-hee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ShaWujing's transformation through the materials concerned before the publication of *Xiyouji*, and examines his role and meaning. In order to appraise ShaWujing fairly and objectively, above all, his name and home, *Liushahe* (river with flowing sands), his image and life are examined to uncover his lif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generally. And through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role as shown in the episodes of *Xiyouji*, and those revealed in the Five Element Theory on the basis of Five Elements, this paper clarifies ShaWujing's place, and deals with its meaning in *Xiyouji*. Consequently, ShaWujing in the story does not show his acute attention to the nature of emptiness (空性), but follows his teacher's guides as a monk of keeping the Buddhist monk's rules. He puts the emphasis on the brotherly love among four brothers, and plays the important role of keeping harmony and unity among themselves. As shown in ShaWujing's role of uniting the pilgrims in harmony, he must have been one of the greatest driving forces of seeking for the scriptures.

In the poems, table of contents, and parallelism in *Xiyouji*, five pilgrims (五聖) are symbolized and their relationships are revealed by Five Elements. ShaWujing represents 土 (earth). He as earth lessens the conflict between SanZang 水 (water) and SunWukong 火 (fire), and strengthens the centripetal force of the pilgrimage. By dissolving the conflict between SunWukong 金 (metal) and ZhuBajie 木 (tree), he also functions as the driving force of the pilgrimage seeking for the Budhhist scriptures. As shown in ShaWujing's role of uniting the pilgrims in harmony, he must have been one of the greatest driving forces of seeking for the scriptures.

In this examination in all the episodes, ShaWujing appears to be a condensed force as revealed in his belief in seeking for the scriptures, virtues like altruism and concession, harmony and unity influencing the story development, thematic constructs, and formation of his character greatly.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서정희 / 徐貞姬 / Suh, Jung-Hee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chsuh@pusan.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17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23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